살찐 주체성의 자기 파괴력

(시편 85:1~13)

1.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 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2.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3.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4.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5.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6.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7.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오늘 말씀 중심으로 <살찐 주체성의 자기 파괴력>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살찐 주체성의 자기 파괴력'
고려대학교 사회심리학과의 허태균 교수님이 "어쩌다 한국인"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분이 최근 들어 사회심리학적으로 볼 때에 현재 한국의 상황이 어떤 상태이고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셨습니다. 교수님의 말을 빌리자면 한국인의 심리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가 주체성이고 둘째는 가족확장성이며 셋째는 심정주의라고 합니다. 책에서는 이러한 키워드를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구체적인 표현들을 통해 예를 들고 있습니다.
주체성을 뜻하는 대표적인 표현으로 "내가 생각하기에는…"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가족확장성은 "형이라고 불러 / 이모라고 불러"라는 표현으로 한국인의 심리상태를 특징적으로 알 수 있답니다. 심정주의는 "너, 그거 사과하는 것 맞아? 진심이 안 보이잖아."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이런 일상적인 표현을 통해서 주체성과 가족확정성과 심정주의라는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특성은 유래 없는 경제적 발전을 이루게 했고, 명품보유율 세계 2위의 자리를 차지하게도 하였습니다. 경제적인 크기로 보자면 세계에서 11위 정도인데 명품보유율은 세계 2위라니 모순적입니다. 또한 한국인 자신들에 의해서 헬조선이라는 말이 만들어진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경제가 발전되어도 행복지수는 여전히 하위권에 불과하여 일에 쫓기고 스트

레스에 눌려 삽니다. 자살률은 1위라고 하고 가계부채는 1,300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400~500조 정도 되는데 3년 동안 나라 살림을 한 푼도 빠짐없이 밀어 넣어야만 채워지는 액수입니다. 해결할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과 관계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주체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말이 "그냥 정해진 대로 하세요."라고 합니다.
특정 상황을 일본인과 비교해봅니다. 교통이 뜸한 한 밤중에 유턴을 기다리는 차량이 있습니다. 일본인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호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상대 차선에 차가 없는 것을 보면 곧바로 유턴을 시도합니다. 이것은 교통법규가 불필요하다거나 준법정신이 낮기 때문이 아니라 주체성이 강하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규정대로라면 유턴 신호가 켜져야 하지만 상대편 차선에 차가 없으니 내 생각에는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불필요하다고 여깁니다. 이러한 주체적 생각으로 유턴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방송에 나와서 강연을 하며 또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최초로 만든 발명품은 많지 않지만 들여온 제품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매뉴얼대로 쓰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모든 매뉴얼은 100% 활용에 맞추어서 제작되지 않고, 안전하고 오랫동안 쓰기 위해서 대부분 80%정도의 활용을 전제로 제작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뉴얼을 무시하고 기계의 활용도를 극대화해서 120~150%의 가동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기계만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렇게 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의문이 생겨납니다. 발명품은 많지 않은데 이미 발명된 물건의 활용도는 높다는 것이 주체성 때문이라면 주체성과 창의성은 반비례하는 것일까요?
확실한 것은 주체성에는 양지가 있고 음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화제가 되는 "너 내가 누군지 알아?"라는 갑질도 한국인의 특성과 연결이 됩니다. 언제나 집단 속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주체성 때문에 생겨나는 부작용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러한 주체성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성경은 살찐 주체성에 대해서 경고로 일관합니다. '살찐 주체성'이란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내 주체성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주체성을 활성화시켜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소원하고 욕구하고 계획하고 추진합니다. 이 세상 삶에 대해서 이렇게 주체성을 활성화시키는 상태를 살찐 주체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살찐 주체성으로 주도하는 삶에 대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뒤덮이게 될 것을 확정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가난하기를 바라고 있으

며, 언제나 마음의 다이어트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난하다'라는 것은 곧 세상을 향해 쓸 마음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세상을 향한 주체성의 스위치를 끄고 억제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주체적으로 열심히 살면 살수록 늪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살찐 주체성의 자기파괴력에 의해서 내 삶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빠져들 수 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결론을 보면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라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주님은 공생애 기간에 스스로 하신 말씀과 행동이 없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인간에게 의존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관계에서 자신의 주체성이 활성화된 적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셨기에 주체성을 가지고 계신 인격적 존재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주체성은 아버지의 종의 위치에 서는 것에 전부 활용되었습니다. 이 세상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체성만 받아들여서 마치 만두 같은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주체성은 얇은 만두피와 같았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주체성을 가득 담고 계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손가락)을 예로 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장갑처럼 예수님을 끼시고 움직이고 계셨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은 남 왕국 유다가 망하면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3차에 걸쳐서 포로귀환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1차 포로귀환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배경으로 쓰인 시입니다.
BC.605년 여호야긴 왕 때에 1차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니엘도 이 때에 잡혀갔습니다. 거의 70년이 지난 BC.537년에 포로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등극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그의 마음이 감동되어 유대인 포로들을 본국으로 귀환시켰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마주친 고국의 상황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덮인 황폐 그 자체였습니다. 도대체 이 총체적 난국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나라를 재건할 수 있고, 정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막막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8~9절부터 보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데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시인이 이러한 조국과 개인의 황폐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음으로 붙잡은 것은 바로 어리석음

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어리석음 때문에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어리석음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야말로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속적 관점에서는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정부의 체계를 확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끊어진 교량도 세우고 건물과 집도 세워야 하며 황폐해진 밭을 일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단지 어리석음으로 돌아가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이 '어리석음'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캐시라'라고 하는데 이 단어에는 '어리석음, 자기신뢰'라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즉 내가 나를 믿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시인은 나라가 망한 원인을 내가 나를 믿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캐시라는 '카살'이라는 동사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카살은 캐시라와 마찬가지로 '어리석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살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리석음과 살찜과 자기신뢰가 의미상 연결을 이룹니다.

마음이 살쪘기 때문에 망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신뢰'라는 단어를 통해서 살찜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신뢰가 곧 주체성의 활성화로 나타납니다. 어떤 문제가 닥칠 때에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를 판단할 수 있는 이유는 판단하려는 자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판단하려고 하다가도 경험상 그 판단이 무조건 틀렸음을 자각할 수 있다면 판단을 중지할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도 주체성으로 마음이 살쪘기 때문이고, 생각하고 고민하면 문제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주체성의 활성화는 자기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자기신뢰를 통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 할수록 주체성은 살찝니다. 시인은 이것을 살찐 주체성을 의미하는 캐시라라는 단어를 통해 표현한 것입니다.

돈 문제가 생겼다면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체성은 뚱뚱하게 살이 찝니다. 자기신뢰를 바탕으로 살찜의 단어를 생각할 때에 주체성의 살찜을 말하는 것이고, 주체성의 살찜은 생각 판단 소원 계획을 활성화시키면서 삶을 이끌어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본 시에서 강하게 거부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주체성이 살찜으로 인해서 나라까지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유다 백성이 살았던 모습을 보면 우리 이웃들보다 특별히 악했던 것도 아닙니다. 선민들에게는 바알 숭배가 언제나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바알 숭배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의 표현에 불과합니다. 어제 설교에서 말씀드린 배척해야 할 종교성입니다. 세상 것을 갖고 싶어서 초월적인 존재를 만들어 내고 동원하려는 마음이 바로 종교성입니다.

계몽주의 이후 합리성과 이성을 강조하게 된 현대와는 다르게 당시에는 종교가 세상 것을 얻기 위한 탁월한 방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우리의 자기계발과 스펙을 쌓으려 노력하지만 당시에는 그러한 노력이 종교성으로서 나타났을 뿐입니다. 즉 바알 숭배는 돈 버는 방법이었습니다. 풍요와 다산을 관장하는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은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었고 돈 버는 방법의 하나였던 것입니다. 한 마디로 이들은 열심히 살았다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9~10절을 보면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선민들의 삶이 평강으로 가득차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일등이 되셔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의 삶이 평강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주체성이 일등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체성의 다이어트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참담한 상황에 빠져버린 조국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주체성을 다이어트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금 머리를 짜서 밤새 계획하고 무엇인가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주체성을 죽이는 것을 나라 재건을 위한 방법으로 택하는 것입니다. 주체성을 활성화시켜서 살찌게 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막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주체성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음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체성을 다이어트 시킬 수 있고 날씬해진 상태는 어떻다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판단 능력이 있고 생각하고 말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육체를 행동하게 하는 의지력과 행동력도 있습니다. 주체성 다이어트는 이러한 모든 주체성에 포함된 능력들의 껍질만 남기자는 것입니다. 판단력과 생각할 수 있는 힘을 내가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껍질만 남겨서 그 안에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을 만두의 속처럼 집어넣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능력이 아예 없다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조차 없습니다. 판단할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행동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받아들여서 수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주체성이 표현되는 갖가지 능력들을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한 껍데기만 남겨두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상태로 남겨두되 실질적 활용은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판단이라는 만두의 만두피는 우리지만 속은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행동도 우리의 행동은 껍데기가 되고 그 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하심이 들어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만두피이고 하나님은 만두 속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체성의 껍데기만을 남겨서 하나님을 채울 수 있는 날씬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바로 내 마음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으로 해결하겠다고 확정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행복과 기쁨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달려있음을 운명처럼

팔자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구약은 성전에서 상번제로 드려지는 어린양의 죽음과 마음을 연합시켰듯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연합시켜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여호와 하나님만이 마음을 채우실 유일한 대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세상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주체성이 우리의 주체성의 껍질을 쓰시고 나타나실 것입니다.
매순간 마음을 돌아보며 무엇 때문에 만족과 기쁨을 잃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려는 나를 끊임없이 성전과 십자가에서 죽여야 합니다. 세상에서 만족함을 얻으려 하지 않는 것은 곧 세상에 대해 활성화되려는 나의 주체성의 스위치를 끄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체성은 세상을 향해 활성화 될 때에 판단하고 계획하고 소원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주체성의 스위치를 끄고 마음의 만족은 오직 하늘에 있다고 믿으며, 우리의 주체성은 오로지 하늘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찾으며 하나님만이 기쁨이라는 판단을 붙잡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주체성을 하늘을 향해 쏟아 부으면 이 땅에서는 우리의 주체성은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고, 우리의 껍데기만 남은 주체성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내용물들로 속을 채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평강의 복된 삶이 살아지게 것입니다.

선민의 나라는 우리에게 있어서 곧 교회입니다. 교회를 망하게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어리석음은 내 주체성을 활성화시킴으로서 살찌우는 것입니다. 살찐 주체성의 파괴력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제거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단 한 가지는 십자가에서 이 세상 삶을 향한 나의 주체성을 죽이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마음이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생활화를 진행하는 동안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